

‘문화나눔’ 지역격차 심각… 광주·전남 하위권 그쳐

최근 5년간 기부받은 공연티켓 20만장 못 쓰고 버려 조계원 “총체적 난맥상… 전면적인 쇄신 필요하다”

나눔티켓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공연티켓 63%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눔티켓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티켓과 할인티켓 무료티켓을 문화누리카드

회원 문화누리카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순)이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나눔티켓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티켓 32만430장 가운데 36.6%인 11만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만2970장(63.3%)은 사장됐다.

기부티켓 10장 가운데 6장은 못 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나눔티켓 기부 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 420건, 세종 750건, 충남 760건, 대전 785건 순으로 나눔티켓 기부 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22만5467건, 경기도가 3만3568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 기부받은 나눔티켓 중 이용매수를 살펴보면, 세종이 38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제주가 127건, 전남이 208건, 충북이 231건, 광주가 416건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은 5년 동안 6만8789건, 경기도는 2만4100건을 기록해 큰 차를 드러냈다.

전남의 경우 2021년~2025년 8월까지 420장의 기부가 이뤄졌지만, 지역 내 실제 이용매수는 208건에 그쳐 절반도 안되는

(49.5%) 이용률을 보였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눔티켓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도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나눔티켓 홍보 집행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까지는 집행액이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부된 티켓 중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한 것이 드러

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비효율을 넘어, 문화예술계의 소중한 기부와 나눔의 뜻을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말하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제도의 주 이용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홍보도 잘 안 됐고, 티켓을 받아도 이용률이 낮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나눔티켓’ 사업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도을 김용욱 명사 및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국제적 시각서 재조명

한·중 학자 국제학술대회…광주·전남 항일활동 중심 논의 “동학정신은 민주화 뿌리”…김영록 지사 기념식 추진 의지

전남도가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전남도는 22일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 활동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심층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학계 전문가, 동학 관련 단체 대표자 등 국내외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불기, 광주·전남 항일활동 중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동학정신의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기조강연에서는 도을 김용욱 명사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 민중의 항일정신’을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위신광(魏愼光) 산동대학교 교수의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 작전에 미친 동학군과 민중의 움직임’, 김재철 영호도회

소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 농민군 활동’, 박해현 초당대학교 교수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 박용구 고려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여부’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임송본 남도학연구원 이사, 조재근 서강대 연구교수, 신민호 전남도의원, 한구무 광주대교수 등이 참여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제고와 영호도회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민중의 의로운 혁명이

었다”며 “이 정신은 3·1운동, 항일 의병 활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사의 근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국가기념식 전남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항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국제적으로 조명하고, 순천을 중심으로 한 ‘영호도회소’의 항일 활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전국 단위 동학농민군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전남 지역의 혁명사적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재호 “전남 ‘보건의료 연구 투자’ 사각지대”

수도권 71%인데 전남 0.6%…지역불균형 심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3조233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면서 서울이 49.2%, 경기도가 19.2%, 인천이 2.7%를 기록한 반면에, 전남은 190억 원으로 0.6%에 불과해 지역 간 예산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수요가 높고 의료취약지 지표가 전국 최하 수준인 전남이 이처럼 낮은 R&D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균형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중을 넘어 지역 의료역량과 산업기반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건강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은 의료 접근성과 인력 기반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4%로 시도 평균(74.23%)에 크게 못 미친다. 공중보건의 인력도 2020년 637명에서 2025년 477명으로 18.6% 감소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20.0%)을 크게 웃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의 1%도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지원 역전 현상’”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균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은 투자 부족으로 연구기관·시설·인력·산업생태계가 모두 취약해지고, 투자유치마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R&D는 단순한 연구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공공투자”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R&D 전략과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전국 최다’

농식품부 공모 7개소 선정…컨설팅 등 선제적 대응 성과

전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나주 뿌리농축산영농조합법인, 해남 정윤영농조합법인, 무안 농바름(유), 영광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진도 진도큰집농협회사법인, 신안 천시아그로텍영농조합법인과 썬맛나는영농조합법인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품목별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 경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다.

이번 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전국 15개소 가운데 전남이 7개소가 선정돼 전국 사업비 170억 원의 49%인 83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며 자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공모에 대비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200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미식인 주간’ 스타셰프 총출동

오세득·임희원·니시무라 다카히토 등 대미 장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마지막주 ‘미식인 주간’을 맞아 오세득, 임희원, 니시무라 다카히토 등 스타셰프가 총출동,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남도의 진짜 미식축제를 펼친다.

개막 이후 매주 다채로운 주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에 참여한 아세안 파빌리온, 명인들의 손맛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남도명인푸드쇼, 전남 시·군 대표요리 전시부 경연,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나는 남도 미래셰프 경연대회, 스페인 출신 그림 미슐랭 1스타 비리 셰프(Elvira Fernandez Garcia)의 월드미식 파티, 전통주, 와인페어링 등 남도의 맛과 이야기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는 홍어, 민어, 낙지, 쟁뎡어, 꼬막, 무화과 등 남도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며, 행

사가 지속될수록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미를 장식할 ‘미식인 주간’을 맞아 남도미식레스토랑에서는 23일까지 이틀간 오세득 셰프가 전남 별교의 제철 꼬막을 활용한 ‘별치고기국수’와 ‘꼬막 비빔밥’을, 24~26일 임희원 셰프가 한우를 활용한 남도국밥, 고흥유자의 상큼한 향을 살린 닭고기 고흥유자냉채를 선보인다.

미식이벤트존에서는 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식·판매 행사와 청년 셰프의 신메뉴 시식행사가 열린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에서는 24~25일 월드미식파티가 열려 일본 후쿠오카 최초의 미슐랭 1스타 셰프 니시무라 다카히토가 남도의 제철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인다. 24~26일 연계행사로 열리는 ‘김남페스티벌’에서는 남도의 특산물로 창작 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마련된 K-푸드 산업관에 관람객이 줄을 서고 있다.

밥을 선보이며, 각 지역의 재료와 개성을 살린 김밥이 한자리에 모여 남도만의 풍부한 맛과 아이디어를 담은 요리로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사무국장은 “이번 마지막 주는 그동안의 박람회로 집약한 미식의 절정이자, 남도 식재료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험

할 소중한 기회다”며 “남도의 품미와 이야기를 오감으로 느낄 이번 주간에 많은 관람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남도의 식문화와 K-푸드 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

광주시가 산업·교육·청년·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2045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가 환경보전, 사회 복지, 포용, 경제적 번영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마을공동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과 현재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되짚는 시민영상, 미래 세대가 꿈꾸는 광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시는 이어 기후위기 대응·사회적 포용·경제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비전’을 발표한다.

양동민 기자